

증시·암호화폐 부진... 갈 곳 잃은 투자금, 은행에 몰린다

5대은행 지난달말 기준 수신잔액 1802.7조로 전월대비 15조 증가
유가증권시장 2600선 무너지고
비트코인은 18개월 만에 최저치

경기불황으로 주식·암호화폐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원인으로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총 수신잔액은 1802조 6847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 145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잔액은 1조 1536억원 늘어난 660조 6399억원을 기록했다. 적금 잔액도 전월 대비 8055억원 늘어난 35조 9591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뉴스시스

수신잔액은 지난 3월 1787조 5396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 대비 5조 3206억원 줄어 들었지만 지난 4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증시·암호화폐 부진으로 자금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유가증권시장은 17개월 만

에 2600선이 무너지면서 연일 연 저점을 갈아치웠다.

국내 증시 약세로 인해 고객예탁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지난 12월 기준 60조 324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71조원)과 비교하면 11조원 감소한 수치다.

암호화폐시장 역시 분위기가 암울하

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월 2만 6000달러 대까지 하락해 18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 6000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시총)도 1조 1400억달러까지 떨어졌고 거래량 역시 지난 4월 말 기준 2조 9440억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전년 동기(4조 7634억 달러) 대비 38.2% 급감했다.

이처럼 투자환경이 좋지 못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등 주요 국가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5% 인상했다. 또한 오는 6월과 7월에 회의에서도 빅스텝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8.3% 상승하면서 시

장 예상치(8.1%)를 웃돌아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역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를 유지해야 환율과 국고채 장·단기 역전현상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역머니무브 현상은 올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 부진으로 은행으로 역머니무브가 지속되고 있어 수신 잔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 역시 이를 인지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영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뉴스 기반 경제지표, 공식 통계보다 신속

한은, 생산·고용 등 15개부문 분석
비교대상 통계 보다 0~9개월 앞서

뉴스 텍스트 기반 경제지표가 비교대상 공식 통계에 비해 0~9개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 이슈 노트 ‘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에 따르면 최근 경기 예측 관련 많은 연구들이 뉴스 텍스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물 부문의 경우 고빈도 경제지표가 거의 전무하고, 공식 통계는 보통 한 달 이상의 공표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만으로는 정성적 정보를 예측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했다.

한은은 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산, 고용, 물가, 주가, 주택가격 등 15개 부문을 직접 선정하고, 각 부문별로 대상지표를 정해 이들 지표의 흐름을 예측하는 텍스트 지표를 각각 작성했다. 텍스트 지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사전 접근법(lexical approach) 방식을 문장별로 적용했다.

부문별로 텍스트 지표를 작성해 관련 공식 통계와 비교분석한 결과, 텍스트 지표가 0~9개월 선행시점에서 공식 통계와 0.35~0.73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1~7개월 선행시점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그레인저(Granger) 인과성을 보이는 등 텍스트 지표가 경기 예측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내포했다.

‘전망’ 및 ‘예측’ 단어를 포함해 작성

한 물가전망 및 주가전망 텍스트 지표는 각각 소비자물가지수 및 코스피지수와 5개월 및 3개월 선행시점에서 0.73 및 0.65의 상관관계를 기록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뉴스 텍스트는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전망 등 정성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입수 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하고 정량화해 경기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범석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연구반 과장은 “뉴스 텍스트의 정량적 활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경기동향 파악 및 경기 예측에 유용하다”라며 “정성적 방법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후면 에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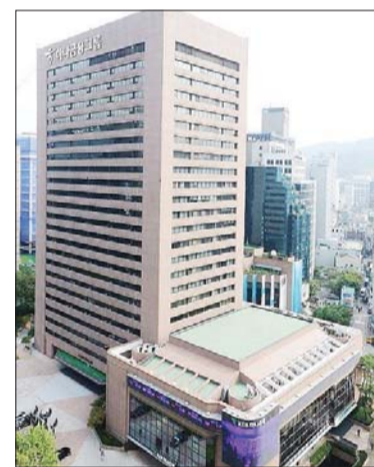
하나금융,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 지지

탄소중립 추진 연합체 NZBA 가입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 선언 및 유엔 산하 글로벌 금융사들의 탄소중립 추진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지 선언을 한 WEPs는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글로벌compact(UNGC)가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하나금융그룹은 WEPs 지지 선언을 계기로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여성인재 중용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그룹차원의 ESG 경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 제로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배출량 목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WEPs 지지 선언과 함께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기업문화 조성,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NZBA 가입을 통해 올 상반기 중에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넷제로(Net-Zero)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사옥. /하나금융

케이뱅크, 1분기 순이익 245억... 74% ↑

고객수 확보, 여수신 잔액 성장 성과

케이뱅크가 올 1분기에 245억원의 잠정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74% 성장하고 지난해 연간 순이익 규모인 225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호실적의 원인으로 고객수와 여수신 잔액의 꾸준한 성장을 꼽았다. 올해 1분기말 케이뱅크 고객수는 750만명으로 지난해말(717만명) 대비 33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신은 7200억원 늘고 수신도 22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예적금과 챌린지박스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인상했다. 같은 달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를 0.5%p 낮춰 1000억원 한도로 특판을 진행했고 3월에는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p 인하했다.

1분기 이자이익은 8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은 1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중저신용 대출 비중도 늘어 지난해 말 16.6%에서 올 1분기말에는 20.2%로 급증했고 4월말에는 21.7%까지 높아졌다.

서호성 케이뱅크행장은 “올해는 은행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유입 및 활동성 강화를 통해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우리은행 보고방식 혁신 ‘위노트’

우리은행은 효율적인 문서작성 및 신속한 보고방식 혁신을 위한 협업툴 ‘위노트(We-Note)’를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면 도입되는 ‘We-Note’(함께 문서를 작성하는 공간)는 클라우드 방식의 웹문서를 이용해 공동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필요한 문서를 빠르게 검색해 활용하는 등 본격적인 협업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We-Note’ 시스템 접속으로 문서확인 및 결재가 가능한 비대면 보고 체계를 구축했으며 각종 회의 시에도 태블릿PC를 활용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을 갖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및 태블릿PC를 이용해 문서작성·편집이 가능한 스마트오피스 환경도 구축해 재택근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

신한은행 ‘금리 5.5%’ 마이홈 적금 이벤트

청약 가입 만 39세이하 고객 대상

신한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5.5%를 제공하는 ‘신한 마이홈 적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마이홈 적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당일에 가입할 수 있는 1년 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저축한도는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기본금리 연 1.6%, 우대금리 연 1.0%p, 특별금리 연 2.9%p를 적용해 최고금리는 연 5.5%이다.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는 오는 12월 30일 까지(10만좌 한정) 진행하며 1982년 5월 1일 이후 출생 고객 중 신한 마이홈 적금 가입 직전 1개월 내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었던 고객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진행한 헤이영 특별금리 이벤트(만 29세 이하) 대비 이벤트 대상을 확대(만 39세 이하)해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하는 고객에게 내 집 마련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